

# 韓國女性の 胎敎認識度에 관한 調査研究

淑明女子大學校 洪 惠 敬  
大學院 兒童福祉學科

## 《目 次》

|             |             |
|-------------|-------------|
| I. 序 論      | IV. 結果 및 解釋 |
| 1. 研究의 必要性  | 1. 胎敎實施事項   |
| 2. 研究問題의 設定 | 2. 胎敎認識度    |
| II. 理論의 背景  | V. 結論 및 提言  |
| III. 研究方法   | 1. 結 論      |
| 1. 研究對象     | 2. 提 言      |
| 2. 測定道具     | 參考文獻        |
| 3. 資料分析方法   | Abstract    |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우리 先祖들은 이미 몇세기 전부터 「胎敎」라 하여 妊婦의 攝生을 婦女子들에게 엄히 가르쳐 왔으며, 이는 오늘날 태아학(Embriology)의 발달로 인하여 胎兒環境이 주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者는 韓國의 전통적인 胎敎의 重要性을 재인식하고 모든 兒童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研究를 착수하였다.

### 2. 研究問題의 設定

本 研究에서는 文獻을 통해 胎敎의 內容과 이를 現代科學에서는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보고, 질문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女性의 胎敎 實施事項과 그 認識度를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로 자기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本 研究에서 究明하고자 설정된 研究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文獻에 나온 胎敎의 內容은 어떠한가?
- (2) 胎敎의 實施事項 및 胎敎의 認識度는 어떠한가?
- (3) 胎敎의 實施事項 및 認識度는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로는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 II. 理論의 背景

胎敎란 妊婦가 胎兒에게 胎中에서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하도록 교육적인 環境을 조성해주는 모든 努力이라 할 수 있으며, 本 研究에서는 胎敎의 內容을 妊娠中 육체적인 과로, 食生活, 藥物服用, 情緒狀態, 남편의 攝生의 5 가지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妊婦와 육체적인 과로에 대해서는 「胎敎新記」, 「카마. 수트라」, 「婦人良方」, 「서민한국사」, 「東醫寶鑑」, 「閩閩叢書」등에서 밝히고 있다. 「胎敎新記」에서는 산과 들에 가지 말고, 높은데 오르거나 깊은데 가지 말며, 험한 곳을 지나지 말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수고하며 힘써서 지나치게 상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

였으며, 또한 妊婦는 일 할만한 것을 가려서 하더, 누에치기, 배틀에 오르지 않으며, 바느질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걸을때 한쪽 발에만 힘을 주지 말고, 기울어진 곳은 오를 때 서서히 하더, 내릴때는 앉아서 급히 서둘지 말며, 뛰어 건너지 말아야 한다.”<sup>11)</sup>고 하였으며, 또한 「婦人良方」에서도 “胎中の 아기를 보호하는데 과로를 피하는 동시에 적당한 운동이 必要하다.”<sup>12)</sup>고 하였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대해 주의 시키는 이유를 金泰龍은 “세탁할 때 엎드려 하는 것은 복부를 압박하므로 조산, 유산의 原因이 되며, 또한 간단한 일이라도 장시간 하는 것은 지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sup>13)</sup>라고 하였으며, Pasamanick 와 Knobloch 는 妊娠中 과중한 일은 妊婦뿐 아니라 胎兒에게도 긴장감을 주게 된다.”<sup>14)</sup>고 주장하였다.

妊婦의 食生活은 胎兒의 發育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주의와 금기사항도 많았다. 「大戴禮記」에서는 “지나치게 맛있으나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구하면 태재(요리담당 우두머리)는 음식 그릇을 한쪽으로 치우면서 아뢰되 함부로 그러한 것을 王太子에게 올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다.”<sup>15)</sup>고 하였으며, 「胎中銘心記」에서는 “모든 음식물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 말 것이며, 매양 식사시에는 부정한 음식을 취하지 말지어다.”<sup>16)</sup>라고 하였다. 또한 「胎教新記」에서도 “과일의 모습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고, 날채소를 먹지 않으며, 음식이 차가와도 먹지 않고, 빛이 나쁘거나,

냄새가 나쁜것, 설익은 것등을 먹지 않으며, 고기 비록 많으나 밥기운을 이기도록 해서는 안된다.”<sup>17)</sup>고 하였다. 이와같이 妊婦의 食生活에 대한 注意를 강조하였으며, 권장하거나 禁忌도 많았다. 예를들면, 권장한 것으로는 잉어, 소의 콩팥, 보리밥, 밥, 대추, 호도, 黑蟲, 蝦與등이 있으며, 禁忌한 것으로는 개고기, 토끼고기, 비늘없는 생선, 방계, 양의 간 오리고기, 비름나물 등이었다. 그러나 生活의 변천으로 妊婦에게는 새로운 금기식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김석환의 「助產學」<sup>18)</sup>에서는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 자극성 식물, 알콜류, 진한 커피나 차, 잠 등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妊婦의 食生活과 胎兒와의 관계를 밝힌 西洋의 研究報告를 보면, Ebbs는 “妊婦의 영양이 胎兒의 미성숙, 사산, 유산, 조산, 출산시간, 병의 저항력, 기형아의 發生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sup>19)</sup>고 하였으며, Harrell등은 “妊婦 2,400명을 2 집단으로 나뉘 한 집단의 妊婦에게만 비타민류를 더 보충해 준 결과 태어난지 3~4년후 지능검사에서 3.7점이나 높게 나타났다.”<sup>10)</sup>고 보고하였으며, McGarry 등은 “妊娠中 철분이 부족되었던 경우는 충분히 철분을 섭취한 경우보다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아이가 많았다.”<sup>11)</sup>고 하였으며, Harmer는 아프리카 17部族을 對象으로 調査한 결과 “妊娠中 적당한 食生活을 한 部族은 嬰兒死亡率이 9.7%이었으나, 부적당한 食生活을 한 部族은 18.1%의 嬰兒死亡率을 나타냈다.”<sup>12)</sup>

1) 이원호, 「胎教」, 박영문고 157, 박영사 1977, pp.186~187.

2) 장세인, 「천재와 저능아」, 사립원, 1979, p.81.

3) 金泰龍, 「母性保健의 實際」, 가족계획연구원, 1973, pp.100~101.

4) Mollie S. Smart and Russell C. Smart, *Infants*, N.Y., MacMillan Co., 1973, p.26.

5) 이원호, 전계서, p.173.

6) 김재선, 대중교육론, 「가정교육」 18 : 60, p.38.

7) 이원호, 전계서, p.188.

8) 김석환, 「助產學」, 일조각, 1960, pp.51~55.

9) Robert F. Biehler, *Chil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p.202.

10) Arthur T. Jersild, Chales W. Telford, and James M. Sawrey, *Child Psychology*, 7 edition, N.J., Prentice-Hall Inc., 1975, pp.58~59.

11) Grover J. Whitehurst and Ross Vasta, *Child Behavio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7, p.56.

12) Smart의, 전계서, p.18.

고 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妊婦의 영양은 미숙아, 기형아, 저능아, 유산, 사산 등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妊婦의 藥物服用에 대해서는 「東醫寶鑑」 「閨閣叢書」 등에서 妊婦와 胎兒의 보호를 위한 처방을 밝혀줄 뿐 아니라 妊娠中 藥物복용에 대한 주의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胎教新記」에서는 “침과 뜸을 망녕되이 쓰지 말며, 약을 함부로 먹지 말라”<sup>13)</sup>고 妊娠中 藥物복용에 대한 주의를 강조함을 볼 수 있다. 또한 胎兒의 保胎를 위한 처방일지라도 禁해야 할 藥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閨閣叢書」에서는 “오두(烏頭), 부자(附子) 반묘(斑猫), 야갈(野葛), 수은(水銀), 파두(巴豆), 우술(牛膝), 이이(薏苡), 옹황(雄黃) 삼능(三稜), 사향(麝香), 사퇴(蛇蛻), 망초(芒硝), 목단피(牡丹皮), 계피(桂皮), 괴화(槐花), 반하(半夏), 남성(南星), 통초(通草) 건강(乾薑), 별갑(鼈甲), 망사(礪砂), 건칠(乾漆), 도인(桃仁), 우황(牛黃), 용뇌(龍腦) 귀견우(鬼箭羽), 금박(金箔), 은박(銀箔), 규자(葵子), 서각(犀角)”<sup>14)</sup> 등을 금하고 있으며, 「東醫寶鑑」에서는 이외에도 “원청(莞菁), 수질(水蛭), 맹충(盲虫), 천웅(天雄), 오공(蜈蚣), 대극(大戟), 아초(牙硝), 비생(飛生), 호분(胡粉), 의어(衣魚), 대황(大黃), 모근(芽根), 석탕(蜥蜴)”<sup>15)</sup> 등을 금하고 있다.

西洋에서는 이에 관심을 갖고 藥物복용의 영향을 밝힌 것은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복용으로 해표지증(Phocomelia)의 기형아를 출산한 이후에 활발해 졌다. 즉

Montagu는 “아스피린조차도 妊娠初期에는 胎兒發達을 기형으로 만들지도 모른다.”<sup>16)</sup>고 하였으며, 또한 습관성 藥品에 대해서도 Brazelton은 “妊婦가 Heroin, Codeine, Morphine의 중독인 경우, 태어난 아기는 이에 대한 중독 현상을 보이거나 출생후 퇴행증상을 보일지도 모른다.”<sup>17)</sup>고 하였으며, 네트라싸이클린의 服用에 대하여 “Drage 등은 妊娠初期에 복용하면 뼈의 발달이 지연된다”고 하였으며, Mull은 “妊娠後期에 복용하면 치아의 손상을 가져온다.”<sup>18)</sup>고 하였다. 또한 「Consumer Reports」 1967, 8월호<sup>19)</sup>에서는 妊娠中 특별한 치료외에는 어떤 약도 먹지 말며, 만약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히 투약할 것과 특히 처방없이 파는 약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妊婦의 情緒에 대하여는 「顏氏家訓」에서도 “눈으로 邪氣로운 것을 보지 않고, 귀로 망령된 것을 듣지 않고, 음악이나 요리 등은 정한 바에 따라 알맞게 해야 한다.”<sup>20)</sup>라고 하였다. 또한 「閨閣叢書」에서는 “지나치게 성내서 기운을 쓰거나 애를 태우지 말라.”<sup>21)</sup>고 한 바 있다. 이규태의 「庶民韓國史」의 제 4 도에서는 “妊婦는 조용히 앉아 아름다운 말만 하고, 아름다운 말만 들으며, 聖賢의 名句를 외우며, 시를 읽거나 붓글씨를 쓰며, 예악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 6 도에서는 “아이를 뱀지 석달만에 그 아이의 기품이 形成되므로 기품이 높은 서상(犀象), 난봉(鸞鳳), 주옥(珠玉) 종고(鐘鼓), 명향(名香) 등을 가까이 두고 완상하며 몸에 지니고 얼굴에 쬐이도록 해야 한다.”<sup>22)</sup>고 하였다. 「胎教新記」에서는<sup>23)</sup> 집안식

13) 이원호, 전제서, p. 186.

14) 憑虛閣 李氏著, 鄭良婉譯註, 「閨閣叢書」, 寶普齋, 1975, p. 329.

15) 동의보감 국역위원회編, 「東醫寶鑑」, 남산당, 1976, p. 64.

16) Paul H. Mussen, John J. Conger, and Jerome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 edition, N.Y. Harper & Row, 1969, p. 85.

17) Whitehurst and Vasta, 전제서, p. 57.

18) Diane E. Papalia and Sally Wendkos Olds, *A Child's World*, N.Y., McGraw-Hill, 1975, p. 54.

19) Biehler, 전제서, p. 205.

20) 이원호, 전제서, p. 174.

21) 빙허각 이씨著, 鄭良婉譯, 전제서, p. 329.

22) 이규태, 「서민한국사」 4, 샘터사, 1973, p. 186.

23) 이원호, 전제서, pp. 183~186.

구들도 서로 조심해 화난 일, 급한 일, 천하고 흉한 일을 알려 두렵고 놀라게 하지 말며, 妊婦는 화나지 말며, 몸소 중이나 닭, 개등을 꾸짖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는 妊婦가 화내면 胎兒의 피가 병들고, 두려워하면 胎兒의 정신이 병들고, 근심하면 胎兒의 기운이 병들고 놀라게 하면 胎兒에게 간질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研究를 보면, Sontag는 “妊婦中 감정적 不安인 두려움, 걱정 등이 심한 경우, 내분비선 특히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화학적 변화는 胎兒에게 영향을 주며 胎兒의 活動을 심하게 한다.”<sup>24)</sup>고 하였다. Lakin은 “갓난아기의 배앓이(Colic)는 어머니가 妊婦中 심한 긴장과 不安狀態에 있었기 때문이며, 원치않는 아이였거나 미혼모의 아기에게 배앓이가 많다”<sup>25)</sup>고 하였으며, Montagu는 “胎中環境이 나뻐올 때는 태어난 아기가 신경과민이 된다.”<sup>26)</sup>고 하였고, Janov는 “産前이건 産後이건 불쾌한 경험들이 胎兒의 뇌리에 記錄되었다가 어떤 한도를 넘을 때에는 노이로제 증상으로 나타난다.”<sup>27)</sup>고 하였다.

胎兒를 위한 아버지의 攝生에 대하여 「胎教新記」에서 “임태시 父親의 청결한 마음가짐은 母親의 10개월에 못지 않게 重要하다. 몸에 병이 있거나, 집안에 근심해야 할 기간이나 음양이 고르지 않고, 하늘 기운이 예사롭지 않거나, 헛된 욕망이나 요망스럽고 잔악한 기운이 몸에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식을 갖는 父親의 道理다.”<sup>28)</sup>라고 하였으며, 「醫心方」에서는<sup>29)</sup> 총명한 자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가 지켜야 할 禁忌사항으로 첫째, 天忌라 하여 매월 초하루, 그믐, 초파일, 23일인날, 크게 비 바

람 부는 날, 안개 낀 날, 일식, 월식, 비정상적인 기후이변인 날에는 남녀교합을 피해야 하며, 둘째 地忌로써 불빛이 비치는 장소, 노천 광야에서 해나 달, 별이 보이는 장소, 祖上의 사당이나 影幀이 있는 장소와 佛堂, 제방쪽이나 殺傷한 물건을 조리하는 부엌이나 변소, 분묘 있는 부근이나 시체담는 널이 있는 부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공청등을 피해야 하며, 셋째 人忌로 술을 마셔서 정신이 희미할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먹지 못해 허기졌을때, 유행병이나 중병을 앓은뒤 회복이 안되었을 때, 목욕해가 모발이나 피부가 채 마르기전, 크게 기뻐하거나 신경을 썼을 때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井上日宏은 「胎教」에서 “女子만의 努力으로는 좋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며, 남편은 精子를 주는 生理上의 協力者외에 胎教에서의 남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sup>30)</sup>고 하였으며, 現代의 아버지가 지켜야 할 胎教로써 Smart & Smar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내는 出産의 고통과 아이가 正常兒인지 또는 엄마로서의 能力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不安을 갖게 되는데, 成熟한 男便들은 이해와 동정, 자신감을 통해 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性生活을 절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너무기 대가족에서 核家族化됨에 따라 妊婦에 대한 男便의 역할은 더욱 커져야만 한다”<sup>31)</sup>라고 男便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4) Whitehurst의, 전제서, p. 56.

25) Mussen의, 전제서, p. 85.

26) 朱貞一, 「兒童發達學」, 교문사, 1978, pp. 75-76.

27) Arthur Janov, *The Feeling Child*, N.Y., Simon Schuster, 1973, pp. 29-30.

28) 이원호, 전제서, p. 181.

29) 장세인, 전제서, pp. 27-31.

30) 井上日宏, 「胎教」 제 2판, 東京, 徳間書店, 1977, p. 109.

31) Smart의, 전제서, p. 15.

### Ⅲ. 研究方法

#### I. 研究對象

本 研究에서는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성남시), 읍·면(양주군)에 거주하는 20~60代 女性 626명을 對象으로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850部 배부한 결과 647部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76.1%였다. 研究資料로 使用된 것은 626部로, 사용율은 73.7%이었다.

對象者の 연령분포는 20代가 9.9%, 30代가 42.5%, 40代는 39.0%, 50代이상은 8.6%이다. 對象者の 學歷別 분포로 보면 국졸이 14.5%, 중졸은 27.3%, 고졸은 40.6%, 대졸은 17.6%의 분포를 나타냈다. 對象者の 地域別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60.5%, 중소도시는 25.9%, 읍·면 13.6%의 분포를 나타냈다.

#### 2. 測定道具

本 研究者는 韓國 女性의 妊娠中 胎教 實施事項과 그 認識度를 알아보기 위한 測定道具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自由應答式 質問紙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이를 기초로 本人이 作成開發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은 각 관계문헌에서 다른 내용을 기초로 作成하였다.

#### 3. 資料分析方法

回收된 資料는 각 문항별로 사례를 집계하고 백분율을 내었으며, 유목간의 差를 보기 위해서  $\chi^2$ 에 의한 有意度 檢證을 하였다. 또한 자유응답식 問項은 그 結果를 몇 가지로 간추렸다.

### Ⅳ. 結果 및 解釋

#### 1. 胎教實施事項

##### (1) 妊娠中 肉體의 인 일

##### ① 妊娠中 힘든 일의 처리 妊娠中 힘든 일

을 “혼자 처리했다”가 49.7%,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이 했다”가 40.4%, “전적으로 他人에게 맡겼다”가 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代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혼자 처리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차의 檢證 결과 有意의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妊娠中 힘든 일의 처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읍·면으로 갈수록 妊娠中 힘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 $p < .01$ )

② 外出이나 旅行 妊娠中 外出이나 旅行은 “될 수 있는 한 줄이도록 노력했다”가 49.0%, “상관하지 않았다”가 29.1%, “妊娠末期에만 줄었다”가 21.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代와 40代가 다른 연령에 비해 妊娠中 外出이나 旅行에 상관하지 않았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結果 有意의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 갈수록 妊娠 末期에만 줄이는 傾向을 보였으며, 또한 대졸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외출이나 여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妊娠中 外出이나 旅行에 대해 조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의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음식물의 攝生

妊娠中 음식물의 攝生은 “평소와 별차이 없었다”가 55.9%, “생각날 때만 조심했다”가 10.7%, “항상 조심하고 자극성 있는 것을 피했다”가 33.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 30代, 40代 경우 “평소와 별차이 없었다”와 “항상 조심하고 자극성 있는 것을 피했다”가 비슷한 傾向을 보인 반면, 50, 60代는 “평소와 별차이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평소와 별차이 없었

다"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차의 검증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국졸이 다른 학력에 비해 "평소와 별차이 없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은 중졸이나 고졸에 비해 "평소와 별차이 없다"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나, 차의 검증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는 타지역보다 妊娠中 食物攝生에 더욱 조심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 $P < .05$ )

妊娠中 피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돼지고기, 김치, 뼈나 비늘없는 생선(오징어, 문어, 낙지), 기름기 있는 음식, 짜고 매운 음식, 커피, 술, 잔치나 제사음식 등으로서, 특히 읍·면에서는 잔치나 제사음식을 피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도시에서는 커피나 짜고 매운 음식을 피했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藥物服用

妊娠中 약물복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려고 노력했다"가 73.8%, "평소와 다름없이 먹었다"가 10.7%, "한약 보제만 먹었다"는 8.1%, "회수나 양을 좀 줄였다"는 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약물복용에 주의를 덜하는 반면, 한약보제를 많이 먹는 傾向을 볼 수 있다. ( $P < .01$ )

학력별로 보면 국졸이 평소때와 다름없이 먹었다가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인 경우는 가장 낮았으며 한약보제의 복용과 회수나 양을 줄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올라 갈수록 약물복용을 조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差의 檢證결과 有意的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에서는 "평소때나 다름없이 먹었다"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으나 差의 檢證결과 有意的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情緒狀態

① 妊娠中에 받은 주위 사람의 配慮 妊娠中에 받은 주위 사람의 배려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가 53.5%, 평소와 "별차이 없었다"가 44.9%, "냉대를 받았다"가 1.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평소와 "별차이 없다"가 높은 傾向을 보였으나, 差의 檢證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주위 사람의 배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지역별로 보면 각 지역간의 비슷한 傾向으로, 별차이 없음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差의 檢證결과 有意的인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家庭의 분위기 妊娠中 家庭의 분위기는 평소와 "별차이 없었다"가 50%, "더욱 화목해 졌다"가 44.7%, "좀 나빠졌다"가 5.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 30代가 40代 이후보다 家庭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 $P < .05$ ) 이는 젊은층의 家庭에 문제점을 提示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家庭의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는 他地域보다 妊娠中 家庭의 분위기가 덜 화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③ 여가활동 妊娠中 한가한 시간은 "누워서 쉬었다"가 50.8%,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다"가 42.0%, "친정에 갔다"가 7.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경향이 높으며, 50, 60代는 누워서 쉬었다와 친정에 갔다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한가한 時間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傾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각 지역간 비슷한 傾向을 나타냈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男便의 協助

① 妊娠中 男便의 協助 必要性 妊娠中 男便의 協助에 대하여 “필요하다”가 83.8%로 절대 다수가 男便의 協助를 바라는 반면, “필요치 않다”는 8.5%, “잘 모르겠다”가 7.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代와 40代는 男便 協助의 必要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代, 50, 60代는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나, 差의 檢證 結果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男便의 協助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F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男便의 協助는 더욱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다. ( $P < .05$ )

② 男便의 協助內容 妊娠中 男便의 協助內容中 “힘든 일을 도와줄 것”이 54.9%이며, “성생활을 조절할 것”이 25.9%, “말로 위로해 줄 것”이 19.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는 힘든 일을 도와주기 보다는 성생활을 조절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국졸은 말로 위로해 줄 것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은 性生活를 조절할 것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結果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힘든 일을 도와 줄 것을 바라는 傾向이 높으며, 性生活를 調節해 줄 것을 바라는 傾向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 $P < .05$ )

③ 妊娠中の 性生活 妊娠中の 性生活은 “妊娠된 줄 알고부터 삼가했다”가 52.1%, “妊娠末期에만 삼가했다”가 33.4%, “妊娠前과 별 차이 없었다”가 14.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가 다른 연령에 비해 “평소와 별 차이 없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0, 60代는 “임신을 알고부터 삼가했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結果 有意的인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妊娠末期에만 삼가하는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는 “妊娠前과 별 차이 없었다”가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結果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胎敎의 認識度

### (1) 胎敎의 認知

① 胎敎의 認知여부 胎敎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가 82.4%로 대부분이 들어 보았으며, “들어보지 못했다”가 17.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와 50, 60代는 30代, 40代에 비해 胎敎에 대해 “들어 보았다”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 갈수록 胎敎에 대한 認知度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胎敎에 대한 認知度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 $P < .01$ )

② 胎敎를 알게된 경위 胎敎를 알게된 경위는 <표-1>과 같이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들었다”가 40.5%, “책,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서”가 39.5%, “학교에서 들었다”가 20.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 30代는 40代이후에 비해 학교에서 들은 傾向이 낮은 반면, 매스컴을 통해 들은 傾向이 높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 갈수록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듣기보다는 학교에서 듣게 됨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듣기 보다는 학교나 매스컴을 통해서 胎敎를 듣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P < .05$ )

(2) 胎敎의 必要性

① 胎敎의 必要性 認識 胎敎의 必要性에 대하여서는 “필요하다”가 72.7%로 대다수가 胎敎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모르겠다”가 21.9% “필요없다”가 5.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代가 다른 연령에 비해 胎敎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높으나, 差의 檢證 結果 有意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胎敎를 알게 된 경위

| 내용                  | 본포별 |      | 연 령 별 |      |     |      |     |      |       |      | 학 력 별 |      |     |      |     |      |     |      | 지 역 별 |      |    |      |     |        | 계<br>N<br>(%) |
|---------------------|-----|------|-------|------|-----|------|-----|------|-------|------|-------|------|-----|------|-----|------|-----|------|-------|------|----|------|-----|--------|---------------|
|                     | 인원수 |      | 20代   |      | 30代 |      | 40代 |      | 5060代 |      |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도시   |      | 중도 |      | 읍면  |        |               |
|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
| 학교에서                | 8   | 16.7 | 32    | 14.4 | 51  | 24.5 | 12  | 31.6 | 5     | 8.8  | 12    | 9.1  | 49  | 22.9 | 37  | 34.6 | 78  | 23.6 | 18    | 14.6 | 7  | 11.1 | 103 | (20.0) |               |
|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 17  | 35.4 | 93    | 41.9 | 82  | 39.4 | 17  | 44.7 | 37    | 64.9 | 73    | 55.3 | 71  | 32.3 | 28  | 26.2 | 118 | 35.8 | 56    | 44.7 | 35 | 55.6 | 209 | 40.5   |               |
| 책,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 | 25  | 47.9 | 97    | 43.7 | 75  | 36.1 | 9   | 23.7 | 15    | 26.3 | 47    | 35.6 | 100 | 45.4 | 42  | 39.2 | 134 | 40.6 | 49    | 40.7 | 21 | 33.3 | 204 | 39.5   |               |
| 계                   | 48  | 100  | 222   | 100  | 208 | 100  | 38  | 100  | 57    | 100  | 132   | 100  | 226 | 100  | 107 | 100  | 330 | 100  | 128   | 100  | 65 | 100  | 516 | 100    |               |

(df=6,  $\chi^2=8.77$   $P > .05$ ) (df=6,  $\chi^2=53.04$ ,  $P < .01$ ) (df=4,  $\chi^2=13.59$ ,  $P < .05$ )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 갈수록 胎敎의 重要性을 더욱 높게 認識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胎敎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度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 $P < .01$ )

② 胎敎方法中 권하고 싶은 事項 胎敎方法中 권하고 싶은 事項은 〈표-2〉와 같이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이 61.1%, “약물복용에 주의”가 17.8%, “심한 運動이나 旅行에 조심”이 9.7%, “性生活의 調節”이 6.6%, “음식물 攝生에 주의”가 4.8%의 順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 60代는 다른 연령에 비해 약물복용과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 낮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결과 有意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에 더 重視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에 더욱 重視하고, 읍·면으로 갈수록 음식물의 섭생과 약물복용에 대한 주의를 더욱 重視함을 볼 수 있다. ( $P < .01$ )

(3) 胎敎의 영향에 관한 認識

胎兒에 대한 胎敎의 영향에 대해서는 〈표-3〉과 같이 “胎兒에 많은 영향을 준다”가 49.2% “胎兒에 약간의 영향을 준다”가 24.8%, “잘 모르겠다”가 21.4%, “근거 없는 일인 것 같다”가 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 30代가 태교의 영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와 근거 없는 일인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약간 높았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갈수록 胎敎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표-2〉 胎敎중 권하고 싶은 事項

| 본모별<br>인원수<br>내용                     | 연령별         |      |     |      |     |      |        |      | 학력별 |      |     |      |     |      |     |      | 지역별 |      |     |      |      |      | 계   |      |     |   |
|--------------------------------------|-------------|------|-----|------|-----|------|--------|------|-----|------|-----|------|-----|------|-----|------|-----|------|-----|------|------|------|-----|------|-----|---|
|                                      | 20代         |      | 30代 |      | 40代 |      | 50·60代 |      |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도시 |      | 중도  |      | 소시   |      |     |      | 읍·면 |   |
|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 선생에 대한<br>편안한 마음과<br>친밀한 분위기<br>의 조성 | 2<br>(5.3)  | 11   | 5.6 | 6    | 3.3 | 3    | 7.7    | 4    | 8.5 | 5    | 4.3 | 9    | 4.6 | 4    | 4.1 | 11   | 3.7 | 6    | 5.4 | 5    | 10.0 | 22   | 4.8 |      |     |   |
| 아름다운 환경<br>의 조성                      | 24          | 63.2 | 118 | 59.9 | 114 | 63.0 | 22     | 56.4 | 21  | 44.7 | 61  | 53.1 | 126 | 64.6 | 70  | 71.4 | 199 | 67.7 | 55  | 53.2 | 20   | 40.0 | 278 | 61.1 |     |   |
| 아름다운 환경<br>의 조성                      | 5           | 13.2 | 38  | 19.3 | 34  | 18.8 | 4      | 10.5 | 9   | 19.1 | 16  | 13.9 | 40  | 20.5 | 16  | 16.3 | 49  | 16.7 | 18  | 16.2 | 14   | 28.0 | 81  | 17.8 |     |   |
| 성생활의<br>정확한 지도                       | 3           | 7.9  | 15  | 7.6  | 9   | 5.0  | 3      | 7.7  | 4   | 8.5  | 13  | 11.3 | 11  | 5.6  | 2   | 2.0  | 9   | 3.1  | 17  | 15.3 | 4    | 8.0  | 30  | 6.6  |     |   |
| 아름다운 환경<br>의 조성                      | 4           | 10.5 | 15  | 7.6  | 18  | 10.0 | 7      | 17.5 | 9   | 19.1 | 20  | 17.4 | 9   | 4.6  | 6   | 6.1  | 26  | 8.8  | 11  | 9.9  | 7    | 14.0 | 44  | 9.7  |     |   |
| 계                                    | 38<br>(100) | 197  | 100 | 181  | 100 | 39   | 100    | 47   | 100 | 115  | 100 | 195  | 100 | 98   | 100 | 294  | 100 | 111  | 100 | 50   | 100  | 455  | 100 |      |     |   |

(df=12,  $\chi^2=9.0$  P>.05) (df=12,  $\chi^2=33.45$ , P<.01) (df=8,  $\chi^2=27.86$ , P<.01)

〈표-3〉 胎敎의 영향에 관한 認識

| 본모별<br>인원수<br>내용              | 연령별 |      |     |      |     |      |        |      | 학력별 |      |     |      |     |      |     |      | 지역별 |      |     |      |    |      | 계   |      |     |   |
|-------------------------------|-----|------|-----|------|-----|------|--------|------|-----|------|-----|------|-----|------|-----|------|-----|------|-----|------|----|------|-----|------|-----|---|
|                               | 20代 |      | 30代 |      | 40代 |      | 50·60代 |      |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도시 |      | 중도  |      | 소시 |      |     |      | 읍·면 |   |
|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 태아에 대한<br>영양을 충분히<br>제공할 수 있다 | 17  | 27.4 | 61  | 22.9 | 61  | 25.0 | 16     | 29.6 | 24  | 26.4 | 36  | 21.1 | 58  | 22.8 | 37  | 33.6 | 101 | 26.6 | 37  | 22.8 | 17 | 20.0 | 155 | 24.8 |     |   |
| 태아에 대한<br>영양을 충분히<br>제공할 수 없다 | 26  | 41.9 | 131 | 49.2 | 127 | 52.0 | 24     | 44.5 | 31  | 34.1 | 82  | 48.0 | 137 | 53.9 | 58  | 52.7 | 185 | 48.8 | 82  | 50.6 | 41 | 48.2 | 308 | 49.2 |     |   |
| 근거 없이<br>일인 것 같다              | 3   | 4.8  | 14  | 5.3  | 10  | 4.1  | 2      | 3.7  | 5   | 5.5  | 10  | 5.8  | 10  | 3.9  | 4   | 3.6  | 17  | 4.5  | 9   | 5.6  | 3  | 3.5  | 29  | 4.6  |     |   |
| 잘 모르겠다                        | 16  | 25.8 | 60  | 22.6 | 46  | 18.9 | 12     | 22.2 | 31  | 34.1 | 43  | 25.1 | 49  | 19.3 | 11  | 10.0 | 76  | 20.1 | 34  | 21.0 | 24 | 28.2 | 134 | 21.4 |     |   |
| 계                             | 62  | 100  | 266 | 100  | 244 | 100  | 54     | 100  | 91  | 100  | 171 | 100  | 254 | 100  | 110 | 100  | 379 | 100  | 162 | 100  | 85 | 100  | 626 | 100  |     |   |

(df=9  $\chi^2=4.34$  P>.05) (df=9  $\chi^2=26.99$ , P<.01) (df=6,  $\chi^2=4.40$ , P>.05)

〈표-4〉 胎敎의 實施程度

| 본모별<br>인원수<br>내용 | 연령별 |      |     |      |     |      |        |      | 학력별 |      |     |      |     |      |     |      | 지역별 |      |     |      |    |      | 계   |      |     |   |
|------------------|-----|------|-----|------|-----|------|--------|------|-----|------|-----|------|-----|------|-----|------|-----|------|-----|------|----|------|-----|------|-----|---|
|                  | 20代 |      | 30代 |      | 40代 |      | 50·60代 |      |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도시 |      | 중도  |      | 소시 |      |     |      | 읍·면 |   |
|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 열심히<br>노력했다      | 22  | 35.5 | 95  | 35.7 | 75  | 30.7 | 19     | 35.2 | 20  | 22.0 | 51  | 29.8 | 99  | 39.0 | 41  | 37.3 | 132 | 34.8 | 60  | 37.0 | 19 | 22.4 | 211 | 33.7 |     |   |
| 생각만<br>했다        | 23  | 37.1 | 114 | 42.9 | 120 | 49.2 | 22     | 40.7 | 37  | 40.7 | 70  | 40.5 | 114 | 44.8 | 58  | 52.7 | 177 | 46.7 | 61  | 37.7 | 41 | 48.2 | 279 | 44.6 |     |   |
| 별로<br>관심<br>없었다  | 17  | 27.4 | 57  | 21.4 | 49  | 20.1 | 13     | 24.1 | 34  | 37.4 | 50  | 29.2 | 41  | 16.1 | 11  | 10.0 | 70  | 18.5 | 41  | 25.3 | 25 | 29.4 | 136 | 21.7 |     |   |
| 계                | 62  | 100  | 266 | 100  | 244 | 100  | 54     | 100  | 91  | 100  | 171 | 100  | 254 | 100  | 110 | 100  | 379 | 100  | 162 | 100  | 85 | 100  | 626 | 100  |     |   |

(df=6,  $\chi^2=5.08$ , P>.05) (df=6,  $\chi^2=34.75$ , P<.01) (df=4,  $\chi^2=11.42$ , P<.05)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胎敎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胎敎의 實施

① 胎敎의 實施程度 胎敎의 實施에 대해서는 <표-4>와 같이 “열심히 노력했다.”가 33.7%, “생각날 때만 했다”가 44.6%,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21.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가 다른 연령에 비해 胎敎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체로 학력이 올라 갈수록 胎敎를 더 열심히 實施함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胎敎에 관심을 갖고 努力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P < .05$ )

② 胎敎에 관심을 가진 時期 胎敎에 관심을 갖게 된 時期는 <표-5>와 같이 “妊娠된 것을 알고부터”가 54.3%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17.7%, “妊娠前부터”가 13.4%, “妊娠 中半期부터”가 8.5%, “妊娠 後半期부터”가 6.1%의 順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代는 다른 연령에 비해 임신 중반기에 관심을 갖는 傾向이 높으며, 50, 60代는 임신 후반기에 관심을 갖는 傾向이 높으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올라 갈수록 妊娠前부터 내지는 妊娠된 것을 알고부터 胎敎에 관심을 갖는 傾向을 볼 수 있다. ( $P < .01$ )

지역별로 보면, 도시로 갈수록 妊娠前이나 妊娠을 알고부터 관심을 갖는 傾向을 보이나, 差의 檢證 결과 有意的인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胎敎에 관심을 가진 時期

| 분포별<br>인원수<br>내용    | 연 령 별 |      |     |      |     |      |        |      | 학 력 별 |      |     |      |     |      |     |      | 지 역 별 |      |     |      |    |      |     |      | 계<br>N<br>(%) |
|---------------------|-------|------|-----|------|-----|------|--------|------|-------|------|-----|------|-----|------|-----|------|-------|------|-----|------|----|------|-----|------|---------------|
|                     | 20代   |      | 30代 |      | 40代 |      | 50·60代 |      |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도시   |      | 중도  |      | 소시 |      | 읍·면 |      |               |
|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N   | P    |               |
| 별로관심을<br>가지지않았<br>음 | 13    | 21.0 | 44  | 16.5 | 41  | 16.8 | 13     | 24.1 | 27    | 29.7 | 40  | 23.4 | 34  | 13.4 | 10  | 9.1  | 57    | 15.0 | 35  | 21.6 | 19 | 22.4 | 111 | 17.7 |               |
| 임신전부터               | 4     | 6.4  | 40  | 15.0 | 36  | 14.8 | 4      | 7.4  | 7     | 7.7  | 24  | 14.0 | 33  | 13.0 | 20  | 18.2 | 53    | 14.0 | 21  | 13.0 | 10 | 11.8 | 84  | 13.4 |               |
| 임신된것을<br>알고부터       | 33    | 53.2 | 144 | 54.1 | 136 | 55.7 | 27     | 50.0 | 37    | 40.7 | 84  | 49.1 | 151 | 59.5 | 68  | 61.8 | 208   | 54.9 | 85  | 52.5 | 47 | 55.3 | 340 | 54.3 |               |
| 임신중반기<br>부터         | 9     | 14.5 | 25  | 9.4  | 15  | 6.1  | 4      | 7.4  | 7     | 7.7  | 13  | 7.6  | 25  | 9.8  | 8   | 7.3  | 38    | 10.0 | 13  | 8.0  | 2  | 2.3  | 53  | 8.5  |               |
| 임신후반기<br>부터         | 3     | 4.8  | 13  | 4.9  | 16  | 6.6  | 6      | 11.1 | 13    | 14.3 | 10  | 5.9  | 11  | 4.3  | 4   | 3.6  | 23    | 6.1  | 8   | 4.9  | 7  | 8.2  | 38  | 6.1  |               |
| 계                   | 62    | 100  | 266 | 100  | 244 | 100  | 54     | 100  | 91    | 100  | 171 | 100  | 254 | 100  | 110 | 100  | 379   | 100  | 162 | 100  | 85 | 100  | 626 | 100  |               |

(df=12,  $\chi^2=14.46$ ,  $P > .05$ ) (df=12,  $\chi^2=41.70$ ,  $P < .01$ ) (df=8,  $\chi^2=10.25$ ,  $P > .05$ )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本 研究에서 조사한 胎敎 實施事項과 그 認識度는 다음과 같다.

(1) 胎敎實施事項

① 妊娠中 肉體的인 일 妊娠中 힘든 일은 혼자 처리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약 반반이었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도시로 갈수록 다른 사람의 協助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이 外出이나 旅行은 될 수 있는 한 줄이려는 傾向을 보였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妊娠 末

期에만 줄이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② 음식물에 대한 攝生 대부분이 음식물 攝生에 있어 平素와 別차이 없는 傾向을 보였으며, 中소도시의 女性이 他地域보다 음식물 攝生에 더욱 注意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妊娠中 避한 음식으로는 닭, 돼지고기, 뼈(비늘)없는 생선, 짜고 매운 음식, 커피, 술, 잔치나 제사음식 등으로, 예로부터 금기시 했던 음식과 요즈음 금기하는 음식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③ 藥物服用 대부분이 될 수 있는 한 피하려는 傾向을 보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藥物服用에 對한 注意가 적은 반면 한약보제를 많이 服用하는 傾向을 나타냈다.

④ 情緒狀態 주위 사람의 배려를 많이 받은 경우와 平素와 別차이 없는 경우가 거의 반반이었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주위 사람의 배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家庭의 분위기 역시 더욱 화목해 지는 경우와 平素와 別차이 없는 경우 거의 반반이었으며 20代, 30代는 40代이후 보다 家庭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젊은 층의 家庭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타지역에서 보다 家庭의 분위기가 약간 나쁘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누워서 쉬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는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⑤ 男便의 協助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학력이 올라 갈수록, 도시로 갈수록 이 傾向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男便의 協助中 대부분 힘든 일을 도와주기 바라며, 도시로 갈수록 이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妊娠을 알고부터 性生活을 삼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이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 (2) 胎教의 認識度

① 胎教의 認知 대다수가 胎教에 대해 들어 보았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도시로 갈

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胎教는 주로 家族이나 親知를 통해서 듣거나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도시로 갈수록 학교나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胎教의 必要性 대다수가 胎教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학력이 올라 갈수록, 도시로 갈수록 이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胎教中 편안한 몸과 마음가짐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이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③ 胎教의 영향 대부분 胎兒에 많은 영향을 주거나 약간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이에 대한 認識이 높게 나타났다.

④ 胎教의 實施 胎教의 實施에 있어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대부분이 胎教를 實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올라갈수록 妊娠前부터 내지는 妊娠된 것을 알고부터 胎教에 관심을 갖는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 2. 提 言

本 研究 結果를 보면 韓國 女性의 胎教에 對한 認識度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보다는 학력별, 지역별에 따른 差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胎教를 輕視하는 傾向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本 研究者는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1) 學校의 性教育 프로그램에 胎教의 必要性 및 內容을 포함시켜야 하며, 女學生뿐 아니라 男學生들에게도 장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妊娠 및 出産에 대비한 父母教育도 實施되어야 하며, 이는 병원의 의료활동과 더불어 넓게 행하여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히 地方 및 영세지역에서는 現在 추진중인 母子保健센터를 확충하여 妊娠婦에게

定期 무료진찰의 혜택을 주고, 母子의 건강, 영양, 妊娠 및 出産에 對한 지도 계몽을 實施하여야 한다. 이들 지도계몽 要件으로는 現在의 가족계획 要件들을 再教育시켜 活用하는 것도 한 方案이라 하겠다.

(4) 本 研究에서는 胎敎의 實施事項과 그 認識度 調査에만 한정하였지만, 앞으로는 胎敎 實施의 效果까지 밝혀 낼 수 있는 研究가 계속 되어야 하겠다.

參考 文獻

김석환, 「助産學」, 일조각, 1960.  
 김재선, 태중교육론, 「가정교육」, 18: 60.  
 김태용, 「母性保健의 實際」, 가족계획연구원, 1973.  
 동의보감국역위원회編, 「東醫寶鑑」, 남산당, 1976.  
 憑虛閣 李氏 著, 鄭良婉 譯註, 「閩閩叢書」, 寶晉齋, 1975.  
 이규배, 「燕氏韓國史 4」, 샘터사, 1973.  
 李元浩, 「胎敎」, 박영문고 157, 박영사, 1977.

장세인, 「친제와 저능아」, 사립원, 1979.  
 朱貞一, 「兒童發達學」, 교문사, 1978.  
 井上日宏, 「胎敎」, 二刷, 東京, 德間書店, 1977.  
 Biehler, Robert F., *Chil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6.  
 Janov, Arthur, *The Feeling Child*, N.Y., Simon Schuster, 1973.  
 Jersild, Arthur, T., Telford, Chales W., and Sawrey, James M., *Child Psychology*, 7 edition, N.J. Prentice-Hall inc., 1975.  
 Mussen, Paul H., Conger, John J., and Kagan, Jerome,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 edition, N.Y., Haper & Row, 1969.  
 Papalia, Diane E. and Olds, Sally Wendkos, *A Child's World*, N.Y., McGraw-Hill Book Co., 1975.  
 Smart, Mollie S. and Smart, Russell C., *Infants*, N.Y., MacMillian Co., 1973.  
 Whitehurst, Grover J. and Vasta, Ross, *Child Behavio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7.

## Abstract

# The Survey of the Degree of Awareness and of Practice concerning Prenatal Care among Korean Women

*Hong, Hae-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degree of awareness and practice concerning prenatal care among Korean women.

In this study, 626 women in Seoul, Sungnam City, and Yangju Gun were randomly selected to be given a questionnaire that was formulated by the researche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obtained by percentage scores and  $X^2$  scores on each item by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regional areas.

The general out come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A. The Practice of Prenatal Care

1. Physical Activities: Concerning the hard work, about a half of the women took care of it by themselves, and the others treated it with help. Also it was found that they tried to reduce the amount of travel as much as possible during pregnancy.

2. Dietary Intake: It was revealed that no significant change were observed before and during pregnancy.

3. Drugs: It was revealed that they tried to avoid drugs as much as possible during pregnancy.

4. Emotion: About a half of the women said that the family atmosphere did not change before and during pregnancy. The others said it had improved after pregnancy. In their spare time, most pregnant women rested in bed, read books, and listened to music.

5. Husband's Support: Most of the women expressed that they needed their husband's support absolutely, especially with hard work. They moderated the sexual activities when they found that they were pregnant.

### B. Degree of awareness for Prenatal Care

1. Perception of Prenatal Care: Most women heard about prenatal care at least one time through family, friend, or mass-media.

2. Necessity of Prenatal Care: Most women recognized the necessity of prenatal care, and they thought that the relaxation of body and mind was important during pregnancy.

3. Influence of Prenatal Care: It was revealed that most women recognized the positive influence of prenatal care to the neonate.

4. Practice of Prenatal Care: It shown that the most of pregnant women took serious interest in prenatal care and they tended to be careful during pregnancy.

Generally speaking,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background seemed to affect most to the pregnant women's awareness and practice of prenatal care: the highe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the more cautious about the prenatal care. The difference in region seemed to affect considerably in most aspects of practice: women in urban areas preceded the rural women in prenatal care. The age difference seemed to affect least in their prenatal care except the younger generation took more care in avoiding the use of drugs.